

▶ 공 지 사 항 ◀

- 6월 20일 - 23일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장 원산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마가스님, 박성수 전법팀장 방문.
- 21일(일)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 법회.
오후 2시 간담회, 오후 4시 마가스님 자비명상
- 6월 25일 - 28일 미주 청년 연합 템플스테이.
LA 선각사 주지 선학스님 방문.
- 선망 조상 및 인연 영가 백중 49일기도 안내
7월 5일(일) - 8월 23일, 동참비 \$100.
- 7월 12일 불타사 불문회 총회
- 7월 19일 불타사 골프대회

▶ 기 도 동 참(6월 7일 - 6월 13일)◀

- 법등: 무명 송수진 조재이 박영규 함영조 김영순 이관재 이주영 김택영 김대성 김대유 김미경 홍주연 김옥경
- 인등만등: Liam 조재이 박윤희 박애니 임윤호 임배성 임윤현 김신아 김희상 김카일 J.T. Fisher Addie Fisher
- 보 시: 김택영 바라밀 네팔지진성금
- 헤민스님 법회공양: 자현심 윤여원(떡)
- 공양: 보승향(대중공양) 법화심 진여성(과일) 자인화 진여성(떡) 자연심 연화지(꽃) 이재광 현심화

▶ 법회 및 기도 안내◀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불타 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30
- 영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어린이 법회 :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 일요일 오후 2시
- 참선수행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시카고불타사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6월 14일 제 43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헤민스님 초청법회

오전 11시 불타사 관음전

- 사시기도
- 삼귀의
- 찬불가
- 청법가
- 법문(헤민스님)
- 관세음의 노래
- 사홍서원
- 공지사항
- 기념촬영

헤민스님 초청법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날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헤민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하게 되어 너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이곳 시카고에 방문해 주신 스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년전 뉴욕에 지낼 때 헤민스님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좋은 도반으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스님을 볼 때면 명쾌한 통찰력과 너그러운 자비심을 보고 많이 배우고 느낍니다. 그동안 많은 마음 치유콘서트를 하셨는데 이번 시카고에서의 행사는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스님의 저서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용에 이 바쁜 세상에서 잠시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잘 안 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의 조언은 마치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한 첩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먼 이국땅에서 낯선 이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이가 떠나갈 때 등.. 경쟁이 미덕이고, 일등만이 기억되는 현대사회에 나의 ‘힘듦’을 내보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 타를 조금 하다가, ‘늑룩치 않은 세상살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와 또 다시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결국 ‘내 마음이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바쁜 것은 사실 내 마음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좋고•싫고•힘들고•괴로운 감정들의 원인은 이미 내 안에 언젠가 내가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세상에 어떤 대답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대답 따위 할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힘들고 위로 받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귀한 시간 내어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행사 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카고 불타사는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차 한잔하시고 마음 쉬었다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진실과 자비의 마음이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불타사 주지 성향스님 합장.

